

22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Chapter

창 6~9장, 마 24:37~39

찬송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심을 압니다.
2.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마음 열기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대홍수 심판의 경고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을 예비해 두셨으며 결국 대홍수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불심판의 경고를 비웃고 무시하며 삽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에는 세상을 수십 번 이상 불태울 만한 무기들이 쌓여 있으며, 결국 불심판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대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며 하나님을 저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 세상에 홍수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석을 통해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그 경고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예석의 승천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므두셀라(‘그가 죽으면 오리라’의 의미)의 유래 없는 장수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는 120년이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포함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음으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며칠 동안 동물들이 자기 발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판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 죄인들은 당황하며 후회했지만 기회는 결코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홍수는 이 땅에서 코로 숨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불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6~7)

by which the world that then existed perished, being flooded with water. But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preserved by the same word, are reserved for fire until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en. (2P 3:6~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1) 잠 1:24~28

2) 속 7:11~14

3) 고후 6:1~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대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5가지 이상 기록해 보세요.

2.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를 5가지 이상 기록해 보세요.

3.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유를 보면 대부분 그들이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30절을 보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 무엇이었는지 기록해 봅시다.

4.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 노아의 홍수가 발생할 당시 살아 있던 셋의 후손이 몇 명인지 계산해 봅시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셋의 후손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움을 알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성경이 없는 곳 찾기

난!
성경이 없는 나라로
도망갈거야~

불신자 K씨



UN이 인정한 국가 수는
200여 개국!
그러나 성경은 3,324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에구~ 항복~



내 아이가 저 유대인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라오

한 독일인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만실에는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서 당장 그 그림을 떼어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뿔 권한이 없답니다.”라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높은 분을 불러 주세요. 그리고 빨리 이 그림을 떼어 버리세요.”라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간부들 역시 자기들에게는 그 그림을 뿔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내 남편은 육군의 고위 장교예요. 남편이 오면 그것을 떼어 버리도록 조치하겠어요.”라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도착했고, 여인은 남편에게 분만실에 걸려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떼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당국자를 찾아가 “나와 내 아내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절대로 저 유대인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하오. 당장 떼어내 주었으면 좋겠소!”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하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가없게도 선천성 맹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6)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